

	86	20

CPR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정치수배

정치수배(2);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조계사농성단, 1998-1999

1999년 3월 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

사회적대안운동본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참정대안운동본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새천년민주당 국민연합 공동대표
 새천년민주당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
 새천년민주당 전국연대협의회 상임의장
 새천년민주당의실천 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새천년민주당 민주열사 유가족협의회 회장

CPh.d.2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8	210

구정권시절 정치 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기자회견

1999년 3월 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

사회자 : 한 충목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참석자 : 오 종렬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 창복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홍 근수 민중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

김 정숙 한국인권단체 협의회 상임의장

권 오현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배 은심 민족 민주 열사 유가족 협의회 회장

구정권시절 정치 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기자회견문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양심수 특별사면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300여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고 시국 관련 수배자가 그대로 거리를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배자들이 '자수하여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면 불구속 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23일 민가협과 김대중 대통령의 면담, 1월 27일 새 정치 국민회의 사면건의안에서 수배 문제가 언급되어 이번에 풀릴 줄로 알았는데 참으로 예매하고 실망스러운 발표였습니다.

정치수배해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고, 집권 여당의 당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와 검찰만이, 정치수배자를 정치·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해 양산된 양심수로 보지 않고, 범죄자로 취급하는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수배해제를 요구하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가로막아 선 것입니다.

수배자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사에서만도 208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의지 삼아 농성하는 동안 계절이 세 번 바뀌고 두 번의 명절을 이곳 조계사에서 보냈습니다. 나라를 망친 김영삼 전직 대통령은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에 저항한 학생들만 법을 들이대려 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88년 노태우 정권도, 93년 김영삼 정권도 구정권시절 수배자들을 수배 해제한 바 있습니다. 살인자며 부정축재자인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도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었는데, 양심세력이 아직까지 핏박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정권의 비리와 독단에 항거하다 정치수배자들이 양산되었는데, 해방 이후 첫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

부에서도 이들을 더욱 핍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농성장에서 아까운 청춘을 보내는 것은 어른으로서 지켜보기 딱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한 청년들이 하루 빨리 수배가 풀려 못다한 학업에 열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회에 봉사하고자하는 소박한 뜻을 실현해나가는 참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사법당국은 의로운 청년들에게 자유를 주기는커녕, 자수해도 선별구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함께 정치수배해제를 열망해 온 사람들인데, 누구는 부모 곁으로 가고 누구는 감옥으로 간다면 이를 어찌 온전한 수배해제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수배해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박상천 법무부 장관과 여당의 책임있는 인사가 '구정권하의 정치수배자 전원에게 대해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하겠다' 는 확답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70여명의 수배자가 부모들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두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법무부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부당한 수배가 풀릴 때까지 정성을 다해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1999년 3월 4일 (정치수배해제 농성 208일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민주개혁국민연합 김상근 공동대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이창복 상임의장/ 통일시대국민회의 함세웅 공동대표/

민중기본권보장과 양심수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홍근수 상임공동대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김정숙 상임의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권오현의장님/

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배은심 회장/ 전국실천불교승가회 청화 의장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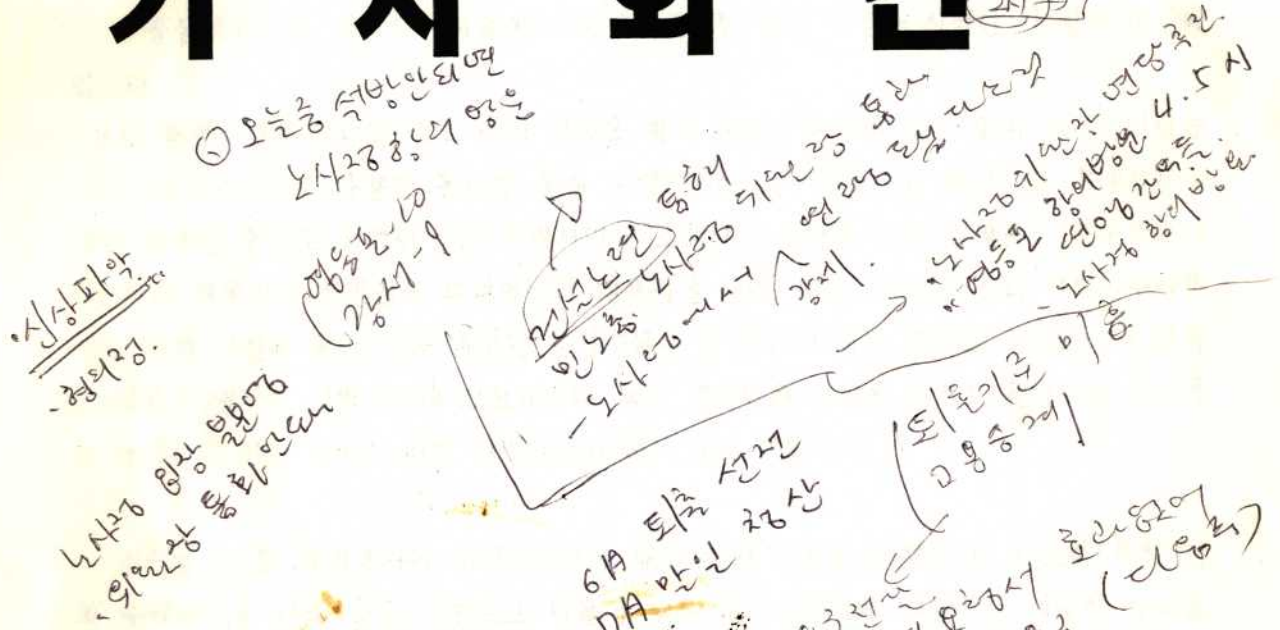
인권 자료실	
인명	번호
삼미특수감	B8 인명/31
→ 권유되다 → 또 관련해서	
수심.	

연락처: 3771-3777
 011-110-5107
 011-34-7705
 제반권 침해

노사성: 정한기
 → 연행: 2번
 → 권유되다 → 또 관련해서
 → 현역중이 정거(금타기) →
 권유되다 강력행위 → 퇴거 → 연행.
 - 기사 되기 → 연행.
 권유되다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자료순서
- 기자회견문
 - 8.15규탄 성명서
 - 농성자 약력과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명단

현대중기: -19명 (영등포)
 이이 나온 사랑도 영등포.
 → 리량순 연락도 영등포.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조계사 농성단
 (대표: 오 창규 연락처 : 조계사 720-6564 019-204-8518)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들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10일째입니다.

8.15 특별사면에 기대를 걸고 여러 활동을 벌여 왔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가버렸습니다. 각계인사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배해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배자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8.15 특별사면에 조계사 농성단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비리 연루자나 헌정질서 파괴범들의 대폭적인 사면, 복권조치와는 달리 사회민주화투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서라는 조건을 강요하더니 결국 455명중 94명만이 석방데는데 그쳤습니다. 국민 대화합은 양심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국민들과 하는 것이지 비리 권력자들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삼정권도 출범초기에 수배자들에게 대한 해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으며 특히 정치 수배자들은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김영삼정권에 대항하다 억울한 수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루 빨리 수배해제가 단행되길 바라며 농성단은 2단계 투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2단계 투쟁은 다양한 협상통로를 거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서명운동과 대중집회, 탄원작업 등 다양한 대 시민 선전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 8월 9일 농성을 시작한 수배자들은

- ▲ 10일 8.15 사면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 ▲ 14일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광고를 일간지 하단 전면(한겨레 신문 9면)에 게재했고
- ▲ 조계사를 중심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 ▲ 40여명에 이르는 수배자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의 활동에 여러 단체와 인사들이 지지해주셨습니다.

▲ 12일 진관 스님, 권오현 민가협 회장, 홍근수 목사, 오종렬 전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의장 등이 새정치 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 한 화갑 원내총무, 검찰청장을 면담 한 바 있으며

사회-단원. 서명운동.

▲ 전국연합, 서울연합, 민가협, 양심수 군대 문제를 위한 모임, 전대협 동우회, 전불련, 실천승가회, 대불련, 새불교 전국승가회, 동국대 총학생회,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 전남대 총학생회, 전남대 대학원 행정학과, 서울농대 학생회 등이 지지 방문해 농성단과 함께 투쟁할 것을 논의했습니다.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 목사 / 성동광진민주시민회 위원장 이 중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중현 / 성남시 의회 의원 김 미희
서울연합 집행위원장 박 기학 / 서울민주청년단체 협의회(서청협) 의장 전 상봉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사무국장 정유진 / 북미주 조국통일 동포회의 집행위원장 최관호 님 등 많은 분들이 수배해제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 농성자 7명의 가족들이 수배해제를 위해 모임을 가졌습니다. 민가협이 주최하는 목요 집회에 참석해 수배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농성단과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 신문 의견란 각 학교 후원회 등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조각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평택 농민회, 나주약국, 청년회, 시민단체 등이 농성장을 찾아 투쟁기금도 기탁해주셨습니다.

▲ 7명의 가족 외에도 다른 수배자들의 부모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찾아주셔서 농성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농성단은 8.15까지 1차투쟁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에서 더욱 힘찬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농성단 → 전대협, 동우회, 국민회의 → 평안.

-오는 22일 2시 조계사에서 '정치 수배해제·양심수 전원 석방·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 단체의 연대사와 수배해제·양심수 전원 석방·인권신장에 관한 연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명의 농성자들이 삭발을 통해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농민회, 대학생, 청년회, 후원회, 교육, 사법개혁 탄원서, 17000명, 17000명.

-8.15사면조치를 규탄하며 계속해서 양심수 석방·수배해제·양심수 군대문제해결을 위해 연대사업을 강화해 인권신장을 위한 공동행보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농성자별로 후원회를 만들어 수배해제·양심수 전원 석방·양심수 군대문제 위한 서명운동을 수배자가 있는 학교와 시내에서 벌이고자 합니다. 서명운동과 모금을 하여 한겨레 신문 의견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수배해제를 위한 후원회에서는 일일 주점이나 문화행사, 홍보, 모금 활동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회단체 인사와 학생운동 선배들로 구성된 협상단을 통해 정부와 사법당국에 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대화할 창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대협동원회 선배들리 개안격합이 - 이공있는 인사들과 접촉.

-아무쪼록 그동안 부족한 농성단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요구사항과 입장은 이렇습니다. -

1. 김영삼 정권 시절에 양산된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수배조치를 해제해 주십시오.
2. 양심수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군대 문제 해결에 대한 상식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3. 강위원, 정명기, 정태홍 한총련 전임 의장을 비롯한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사면과 석방을 요구합니다.
4.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법원은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6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6기 대의원 검거는 초법적인 인권탄압이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5. 국가보안법은 민주와 통일의 새 시대에 맞지 않으며 위헌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 혹은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1998년 8월 18일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조계사 농성단

대표:오창규(吳昌圭) 019-204-8518/ FAX 723-9120

자료) 8·15특별사면에 대한 규탄 성명서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8·15특별사면은 김대중정권에 대한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조치였습니다. 특히 각계인사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배해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언급도 없으니 현정권이 정말 국민의 정부인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말많은 잔치 집에 먹을 것 없다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결국 시국사범은 부정 부패 비리자와 역사의 대 죄인들의 사면 잔치에 들러리 노릇만 실컷하고 국민의 정부에게마저 외면 당했습니다.

그나마 이번 8·15 사면대상에 포함된 양심수들도 가석방, 형 집행 정지에 그쳐 양심수들의 실질적인 사면조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비리연루자와 헌정 질서 파괴 범들에 대해서는 전원 잔형 면제나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등을 통해 공민권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국민의 정부인지 부패한 권력자들의 정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 전체 양심수 455명중 94명만 석방하고 ▲그것도 시국사범에게만 비인도적인 준법서약서 제출을 강요했으며 ▲한보사건이나 전·노 부정축재 관련자와 5.18, 12.12같은 반역사적인 정치인만 실질적인 사면조치를 단행한 점과 ▲18년 이상 복역중인 비 전향 장기수 17명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등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기만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를 오늘같이 추락시킨 주범인 부정축재자들은 어떤 조건도 없이 사면복권까지 시켜주고 사회민주화투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양심수들은 구차한 조건을 내걸더니 결국은 94명만 석방하는데 그쳤습니다.

박 상천 법무부장관은 헌정파괴·부정 축재 범들의 사면, 복권조치의 이유를 “지난해 석방 이후 근신해왔고 이들보다 죄상이 중한 전·노 씨가 이미 사면·복권되었기 때문에 이들만 복권시키지 않는 것이 ‘동일 사건에 있어서의 형평’에 어긋나고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 대화합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 화합은 양심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국민들과 해야하는 것이지 비리 권력자들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외세와 소수 권력자들만을 위한 정권이 나라를 오늘에 이르게 만들었는데도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정권마저도 이전 정권과 다름없이 양심수 석방마저 외면한다면 역대정권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양심수 석방 등 인권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모아 청와대에 들어가더니 결국 보이는 건 권력자들 뿐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인 수배해제·양심수 전원 석방·양심수들의 군대 문제 해결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영삼 정권 시절 시국관련 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은 8.15특별사면에 크게 분노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수배해제를 위해 끊임없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건국 50년 8.15일

김영삼 정권 시절 시국관련 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자료)

농성자 명단

오창규 (吳昌圭) - 학생운동 관련 최장기 수배자

67년 광주 출생

86년 전남대 심리학과 입학

93년 전남대 총 학생회장, 남총련 의장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현 전남대 대학원 행정학과 재

김현근 (金鉉坤)

69년 부산 출생

87년 서울대 농화학과 입학

97년 한총련 연대사업위원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유병문 (兪炳文)

72년 경남 거제 출생

92년 동국대 불교학과 입학

96년 동국대 총 학생회장,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엽동렬 (葉東烈)

72년 전남 장성 출생

91년 건국대 농학과 입학

97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배

김성숙 (金晟夙)

72년 전남 장성 출생

91년 전남대 가정관리학과 입학

93년 전남대학신문사 편집장

97년 한총련 언론사업 활동 중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

이영수 (李泳洙)

74년 경북 영천 출생

94년 서울대 농촌사회교육과 입학

97년 서울농대 부회장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김재돈 (金載敦)

75년 광주 출생

94년 서울대 농기계과 입학

97년 서울 농대 회장, 경기남부총련 의장 권한대행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자료)

김영삼정권 시절 수배자 명단-총 55명

(누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누락자는 연락바랍니다)

이상훈(홍익대 건축공학과) 김명희(동국대 역사교육학과) 양승미(상명대 국교과)
류순(고대 경제학과) 송현석(한양대 철학과) 유병문(동국대 불교학과) 배정기(경희대 신방과)
이창희(단국대 경제학과) 박재철(외대 용인 영어과) 최선희(성신여대 통계학과)
김희정(이대 신방과) 공은희(덕성여대 통계학과) 이정인(동명전문 가스냉동) 윤용웅(인제대 법학과)
이현주 (부산여전 유아교육과) 김광수(부산대 섬유공학과) 박봉열(부산대 무기재료)
이대동(경북대 미생물학과) 최윤진(경북대 원예학과) 이정훈(경북대 식품공학과) 이광호(인천대국문)
홍창훈(인천대 경영학과) 이정수(인천대 토목학과) 홍춘호(인천대 국문학과)
노형일(한남대 영어교육과) 정미혜(상명대 천안 전자계산학과) 이재춘(충남대)
박준형(경남대 기계과) 김태희(울산대 섬유디자인과) 김진욱(울산대 조선해양)
손해연(울산대 불문과) 유영업(목포대 영문과) 최태진(조선대 행정과) 진재영(전남대 자원공학과)
오창규(전남대 대학원 행정학과) 윤민호(조선대 항공학과) 고겸(조선대 원자공학과) 송성주(동신대)
정오균(순천대 기계공학과) 이석훈(순천대 금속학과) 김용석(순천대 물리학과) 김민임(창원대)
장귀영(동신대) 김은정(동신대) 고재한(동신대) 김형삼(외대 헝가리어) 임옥영(명지대 용인 정통과)
이병언(경희대 건축) 신은경(경원대 불문) 김재돈(서울농대) 박대성(경원대 도계과)
이미선(경원대 의상과) 김대성(용인대) 안광호(경기대 건축과) 이영수(서울농대)

자료)

김영삼정권 시절 수배자 명단-총 55명

(누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누락자는 연락바랍니다)

이상훈(홍익대 건축공학과) 김명희(동국대 역사교육학과) 양승미(상명대 국교과)

류순(고대 경제학과) 송현석(한양대 철학과) 유병문(동국대 불교학과) 배정기(경희대 신학과)

이창희(단국대 경제학과) 박재철(외대 용인 영어과) 최선희(성신여대 통계학과)

김희정(이대 신학과) 공은희(덕성여대 통계학과) 이정인(동명전문 가스냉동) 윤용웅(인제대 법학과)

이현주 (부산여전 유아교육과) 김광수(부산대 섬유공학과) 박봉열(부산대 무기재료)

이대동(경북대 미생물학과) 최윤진(경북대 원예학과) 이정훈(경북대 식품공학과) 이광호(인천대국문)

홍창훈(인천대 경영학과) 이정수(인천대 토목학과) 홍춘호(인천대 국문학과)

노형일(한남대 영어교육과) 정미혜(상명대 천안 전자계산학과) 이재춘(충남대)

박준형(경남대 기계과) 김태희(울산대 섬유디자인과) 김진욱(울산대 조선해양)

손해연(울산대 불문과) 유영업(목포대 영문과) 최태진(조선대 행정과) 진재영(전남대 자원공학과)

오창규(전남대 대학원 행정학과) 윤민호(조선대 항공학과) 고겸(조선대 원자공학과) 송성주(동신대)

정오균(순천대 기계공학과) 이석훈(순천대 금속학과) 김용석(순천대 물리학과) 김민임(창원대)

장귀영(동신대) 김은정(동신대) 고제한(동신대) 김형삼(외대 헝가리어) 임옥영(명지대 용인 정통과)

이병언(경희대 건축) 신은경(경원대 불문) 김재돈(서울농대) 박대성(경원대 도계과)

이미선(경원대 의상과) 김대성(용인대) 안광호(경기대 건축과) 이영수(서울농대)

제 목: 조계사 수배해제투쟁 기자회견문

올린이: 관악동연(최승제) 98/08/10 14:18 읽음: 63 관련자료 없음

건국 50주년 8.15 맞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조계사 농성단 성명서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다 오랜 기간 수배된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수배 조치를 8.15 특별사면에서 해제해 주실 것을 김대중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유래 없는 물 피해로 망연자실해 있을 수재민들의 아픔에 팔을 걷어 부치고 복구활동에 나서야 함에도 수배된 몸으로 소리 없이 거리에서 가슴아파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나라사랑 민중사랑의 열정으로 살다 수배 받은 저희들이기에 더욱 가슴 아픕니다.

저희들은 일제 해방 이후 첫 정권교체를 벅찬 감격과 기대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배자들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이 나라를 망쳤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이에 저항하다 수배 받은 양심적인 수배자들이 아직까지 거리를 헤매야 하는 현실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분단과 독재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제 2의 건국 이념을 세워 민주발전과 경제회생의 큰길을 열어나가기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기대가 이번 8.15 특별사면에는 반드시 이뤄져 부모님들에게는 밝은 웃음을 선사하고 국민들에게는 현정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김영삼 정권 시절에 양산된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수배조치를 해제해 주십시오. 김영삼 정권도 출범 초기에 3백 여명의 정치수배자들을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라는 실질적인 수배해제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압니다. 최초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양심수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군대 문제 해결에 대한 상식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3. 강위원, 정명기, 정태홍 한총련 전임 의장을 비롯한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사면과 석방을 요구합니다.
4.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법원은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6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6기 대의원 검거는 초법적인 인권탄압이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한총련은 부족하지만 백만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학생들의 대표 조직입니다. 학생운동이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탄압이 아니라 토론과 행동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학생운동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대화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5. 국가보안법은 민주와 통일의 새 시대에 맞지 않으며 위헌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 혹은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8.15) 즉각 석방

과거정권 [총체적 수배해제, 양심수 군문제, 석방대책위]

↓ 관련자들 석방 (100여명)

문화교육관. 대응전

1998년 8월 10일 (오전 11시)

천안

51-2006

55. 양심수 양심수투쟁

과거정권 좌우일체 탄압정권

732-2115
732-9341
전국 50주년 8.15 맞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조계사 농성단
대표: 오창규(吳昌圭) 720-6564

농성자 명단

- ① 오창규 (吳昌圭)
67년 광주 출생
86년 전남대 심리학과 입학
93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남총련 의장활동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현재 전남대 대학원 행정학과 재
- ② 김현곤 (金鉉坤)
69년 부산 출생
87년 서울대 농화학과 입학
97년 한총련 연대사업위원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 ③ 유병문 (俞炳文)
72년 경남 거제 출생
92년 동국대 불교학과 입학
96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 ④ 엄동렬 (葉東烈)
72년 전남 장성 출생
91년 건국대 농학과 입학
97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배
- ⑤ 김성숙 (金晟夙)
72년 전남 장성 출생
91년 전남대 가정관리학과 입학
97년 한총련 언론사업중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
- ⑥ 이영수 (李泳洙)
74년 경북 영천 출생
94년 서울대 농촌사회교육과 입학
97년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 ⑦ 김재돈 (金載敦)
75년 광주 출생
94년 서울대 농기계과 입학
97년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언제부터?

98. 12. 1 (일)

- 김윤중.
- 사북경찰. 유범.
- (사진. 영)

수배자 11명.
현여중기 노조 (한인)
→ 250여명.

별첨자료-3)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해 국민에게 드리는

호 / 소 / 문

정치적 견제세력에 대한 초법적인 인권탄압이 난무하는 사회는 정치 발전도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없으며 부정부패와 경제파탄으로 인한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로 확인되었습니다.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다 박해를 받은 모든 양심세력들에 대해 수배해제와 전원석방이라는 웅대한 선물을 안겨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신정한 제 2의 선국을 이루어 내는 지름길이자 국민대화합으로 경제회생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8.15 특별사면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헌정파괴와 경제 파탄의 주범들에게는 사면에 복권까지 전폭적으로 단행한 반면 그들에 저항하다 수배 받고 구속된 양심수들은 온갖 조건을 부쳐 배제 선별하고 그나마 선별된 사람들도 가석방, 형 집행 정지, 감형만을 단행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발전과 경제회생을 김대중 정부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8.15 특별사면의 교훈입니다. 이제 진정한 민주 발전과 인권신장을 통해 경제회생의 정치적 원동력을 형성하는 일에 각계의 뜻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백만 청년 학생 여러분.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우리와 함께 공부하고 뛰어 놀던 친구,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일신의 안락보다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들입니다. 이들의 수배해제 전원석방을 위해 10 만명 서명운동에 모두 나섭시다. 각 학교마다 후원회, 대책위원회를 꾸려 후원주점, 모금, 선전활동, 문화행사 등을 다양하게 벌여 학우들의 대중적 힘으로 수배해제, 구속자 전원석방을 쟁취합시다.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교수님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여론 선도층입니다. 신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다 감옥으로 끌려가고, 거리를 헤매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 수배해제, 구속자 석방 탄원서등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탄원해 주십시오.

수배자, 양심수들의 가족과 부모들은 한탄하고 눈물 흘리기 전에 자식을 믿고 아들, 딸과 손잡고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합시다. 부모님의 사랑만큼 사회적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회, 청와대, 검찰, 법무부등 모든 관계 기관을 방문하고 청원하고 항의 합시다. 자식을 믿고 함께 싸우는 것이 부모님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양심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수배자와 양심수들을 적극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사회적 발언력을 높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내변하는 것이 참다운 종교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흉악범이 아니라 양심수, 애국자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수배해제, 양심수석방의 증제자가 되어주십시오.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과거 수배와 감옥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가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해 옹당한 자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단체들은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속에서도 수배자들과 양심수들이 우리들의 동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심회와 행사 과정에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수배해제, 양심수 석방을 적극 알려내고 요구합니다.

모든 민주적인 정치인들, 양심적인 종교계 지도자들, 각계 각층의 민주단체, 백만 청년 학생들은 역사의 주인, 민주발전과 경제회생의 주역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투쟁에 열과 성의를 다해 나섭시다.

1998년 8월 22일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대표 오창규

이: 오창규 받는다	
이: 오창규 받는다	이: 오창규 받는다
B8	166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활 / 동 / 보 / 고

1. 단식농성 6일째!!

지난 5일부터 '양심수문제 완전해결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농성단식'을 벌인지 오늘로서 6일째입니다. 이번 단식에는 저희 수배해제 농성단과 양군모농성단, 명동성당농성단, 한총련단식단(30여명), 옥중단식단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지난 8일부터는 노수희 전국연합 의장님과 이천재 서울연합 의장님이 단식에 동참하셨습니다. 이렇듯 이 땅 애국민중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견디며 천막에서 감옥에서 단식으로 투쟁하고 있음에도 인권정부라며 자치하고 있는 현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참조: 분민정부 초기의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때 국민의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의 비율은 4.6배나 많습니다.)

2. 수배자 부모님 농성결합

저희들의 기나긴 농성투쟁을 지켜보시며 참다못한 부모님들이 생계를 잠시 접어두시고 지난 6일부터 서울에 대거 상경하여 농성투쟁에 힘있게 결합하셨습니다. 10여분의 부모님들이 매일 아침 9시부터 활동을 시작하시어 국민회의를 비롯한 3당 방문, 법무부와 검찰청 그리고 언론사 등을 항의 방문하시어 수배해제추구와 특별사면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매일 민권공대위와 민가협, 유가협의 집회 및 거리캠페인, 인권영화제 등 여러 집회와 행사에 참가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자식사랑의 마음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기며 허부허부 힘있게 투쟁하고 계시는 저희들의 부모님들께 힘찬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3. 대통령면담 대표단 구성과 면담 추진(12월 9일 한겨레 신문 참조)

저희는 세계인권선언 50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문제해결과 청년양심수 군문제 해결 및 조건없는 양심수 특별대사면 추구를 위한 대통령면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상근목사님, 이창복대표님(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홍근수목사님(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상임대표), 함세웅신부님(통일시대 국민회의 상임대표), 권오현의장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김승훈신부님(천주교 인권위 고문), 오종렬의장님(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등 7분의 덕망있는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개별적 인권사안만이 아닌 전체 인권문제를 갖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저희는 이에 마땅히 동의하여 민가협, 유가협, 민권공대위, 공추위 등에 의견을 물어 '남면 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 건의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인권요구인과 대통령 면담건의의에서 9인의 재야 어르신께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19-59-20
양심수 5 → 2

인권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2. 준법서약서를 철회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전원 석방!
3.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들 비롯한 모든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
4. 청년양심수의 군 문제를 합리적 해결과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
5. 출소한 양심수에 대한 보안관찰법을 철폐!
6. 한총련과 범민련에 대한 이석단체 규정 철회!
7. 인권탄압의 본질적, 법적 근원인 국가보안법 철폐!
8. 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독립성과 실효성 보장!

4. '양심수문제 완전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선언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단체 30여곳을 포함한 120여 단체와 48분의 구속·수배자 부모님, 그리고 개인명의로 270여 분이 선언운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선언운동은 12월 9일자 한겨레신문 19면 하단 전면광고로 총화되었습니다.

성원해주신 많은 사회단체 및 각 단위 학생회와 후원회, 그리고 부모님들과 여러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 경악! 민족정론지 자처하는 국민주신문 한겨레의 분노스런 작태!

12월 9일자 한겨레신문 19면에 게재된 '양심수문제 완전해결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공동선언' 광고에는 여러 단체와 시민,학생들을 비롯 기간 통일운동에 앞장서 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 측에서 마감 5분전에 연락이 와서는 정부방침에 의해 범민련은 명단에 넣을 수 없으며 범민련이 명시될 경우 전체광고를 낼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는 선언운동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동지적 애정과 연대, 그리고 9일 광고총화의 약속을 지키고자 어쩔 수 없이 범민련이 제외된 광고문으로 신문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범민련에 연락을 드려 상황을 말씀드리고 통신을 통한 대응을 했습니다.

언제나 조국통일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았던 범민련과 여러 선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통제를 자행하는 정부당국을 규탄하며 민족정론지 국민주신문을 자처하는 한겨레의 바른 위상 찾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언론통제 자행하는 정부당국 각성하라!
- 권력통제 놀아나는 국민주 신문이 웬말이나!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시 농성단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조계사내 / 전화 732-6880~1, 017-205-8518 / FAX 582-4178)

인권 자료	
분류기	
B8	168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조계사내/ 전화 732-6880 / FAX 723-9120

=====

문서번호: 농성단 제 98-3-14

시행일자: 1998. 10. 14

수 신: 제 사회단체

참 조: 실무자 님

제 목: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수가협)' 결성에 관한
공고

=====

1.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을 걸어오신 귀 단체의 대표님 이하 회원님께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2. 본 농성단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조계사에서 천막농성을 벌인지 67일째(10월 14일 현재)입니다.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항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길게는 6년여의 수배를 받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과거청산과 인권의 차원에서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들의 수배조치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3. 이에 수배자의 아들 딸을 둔 가족들이 부당한 수배와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수배해제 조치를 이루고자 오는 16일 조계사에서 '수가협' 결성식을 갖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자식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수가협' 결성과 활동의 첫 걸음을 내딛으시는 저희들의 부모님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라며 마침내 '수가협'이 자주민주통일의 소중한 불씨로 성숙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 협조내용: 1. 오는 16일 개최되는 '수가협 결성식'에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 2. '수가협' 결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수가협'의 활동과 수배해제 투쟁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자료 첨부> 수가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단장 오창규

<별첨자료 >

◆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수가협)'에 대해서

1. 수가협 결성의 배경

억울하게 수배를 받아 밖에서 잠을 자야하는 아들딸들을 생각할때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수배자 부모들은 아들딸들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이라는 세월을 생이별하며 살아왔다. 배를 아파가며 낳은 아들딸들이 잘 먹고 있는지 용돈은 있는지, 건강한지를 생각할때면 수배지 부모로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매일 같이 찾아와 아들딸들을 육만 하고 가는 형사. 시도 때도 없이 길려오는 전화에 시달림을 받으며 고동스러워도 큰소리 한번 못치고 살아왔다.

이에 김영삼 정권시절에 수배를 받은 66명의 수배자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아들딸들이 억울하게 수배를 받았기에 그 진실을 밝히고, 정치수배해제를 통해 하루속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와 다른 집의 아들딸들처럼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수가협을 결성한다.

2. 수가협 결성까지의 수배자 가족들의 활동

- ▲ 8월 12일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수배자 가족들이 모임을 갖고 농성단의 활동을 격려함. 이후 민가협 집회 참가
- ▲ 9월 13일 사회단체 어르신과 7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 참석
- ▲ 9월 24일 수배자부모님, 민가협어머님, 노반 스님, 김재용(한총련1기의상) 등과 함께 법무부를 방문하여 박영관 검찰 3과장을 면담하였고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친척 탄원서 부모님 자필 탄원 편지를 제출함
- ▲ 언론홍보활동 전개: 월간말 편지글 소개, MBC라디오 여성시대에서 편지글 소개됨
- ▲ 3차례에 걸친 수배자 가족 모임을 진행 함
- ▲ 66명의 수배자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조계사를 방문하여 지지활동 펴

3. 수가협의 활동방향

- (1) 모든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를 위해 노력
- (2) 정치수배자들의 수배사유에 대한 올바른 진실규명 활동 전개
- (3) 경찰과 수사 당국으로부터 수배자 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 (4)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 활동을 적극 후원
- (5) 수배자 자녀들의 수배해제 이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
- (6) 수배자 가족간의 위로와 친교활동
- (7) 준법서약서 폐지운동
- (8) 정치수배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 (9) 인권운동 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

4. 수가협 결성식

- 일시 : 10월 16일 늦은 3시 30분
- 장소 : 조계사 대웅진 앞(우천시 변경될 수도 있음.)
- 차례 :

< 1부 > ◆ 수가협 결성식 ◆

- 개회
- 대회사
- 축사(김종맹 헌총련 학부모협의회 대표)
- 대표 인사말 및 결성 선언문 낭독

< 2부 > ◆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결의대회 ◆
(사회 : 박해전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장)

- 민중의례
- 대회사(홍근수 민권공대위 상임대표)
- 격려사(전불련 대표 지원스님)
-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발언(김귀식 전교조 위원장)
- 현대중기산업 고용승계 촉구 발언(현대중기산업 노조 대표)
- 문화공연(희망새, 천리마)
- 준법서약서제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발언(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 정치수배 해제 촉구 발언(오창규 조계사 농성단장)
- 결의문 낭독(김정숙 민가협 상임의장)
- 광고
- 폐회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

인권 자료실		
등록인		
	B8	162

제 목:★ 수배자가족협의회 결성 선언문

올린이:수배해제(오창규) 98/10/18 12:15 읽음: 72 관련자료 없음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 협의회 결성 선언문

자식 수배 풀리는 날만을 고대하던 부모들이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 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약칭 수가협)를 결성, 자식들의 억울함을 풀고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자식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 타향에서 고생하고 있을 자식 걱정에 부모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인간답게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잠자리 걱정을 하며 헤맬 것을 생각하다보면 부모들도 어느새 자식 신세가 되어 마음 조리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자식걱정에 끝나지 않습니다.도경찰청,시경찰청,보안수사대, 심지어는 파출소 소속 경찰들이 아무 때나 집에 찾아와 협박,회유,공갈을 일삼습니다. 직장 동료, 동네 이웃들에게까지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전화가 도청되고 감시당하는 기분이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하지만 혹시 자식이 불이익 당할까 이렇다할 말도 못하고 몇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 들이 왜 죄인이어야 합니까? 이 나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김영삼 전직대통령입니다. 김영삼 전직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 건네 준 수 조원의 돈으로 부정선거를 치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아들까지 동원해 한보비리 등 온갖 부정비리를 저질렀습니다.이런 도둑을 대통령으로 놔두면 이 나라가 망하겠기에 학생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 자금을 공개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냈다면 자식들의 희생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생계에 바쁠 때 의로운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들의 주장은 나라를 망치고 북한을 돕는 이적행위로 매도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빨갱이로, 폭도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속임수가 분명합니다.

김영삼 정권이 수 백명의 학생들을 연행해갔지만 아직도 66명의 수배자들이 있습니다. 감옥에는 400여명에 이르는 양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정권이 들어서 양산된 수배자가 2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돈을 갈취하고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김영삼 전직대통령은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이에 대항했던 자식들은 아직도 죄인으로 낙인찍혀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국민의 정부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작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가 수배해제 해준다기에 가족, 친척들은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이젠 자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석방되었을 때 '살인자도, 부정축재자도 나오는데 죄없는 내 자식 수배해제 안되랴' 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3월 13일 특별사면에서도, 8월 15일 특별사면에서도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만 국민화합차원에

서 사면해 주고 수배 해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스니다. 김대중정
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인가요?

이제 김영삼 정권시절에 무고하게 수배되어 거리를 헤매고 있는 아들딸들의 수배해제를 위한
활동에 두 손 걷어 부치고 나서고자 합니다. 8명의 아들 딸들이 조
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위해 69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수배자로 둔 우리 부모들은 부당한 정치수배를 풀고 아들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들은 침묵을 깨고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의 결성을
선언합니다.

수가협은 정치수배를 받아 억울하게 탄압받는 자녀들을 수배해제를 앞당기는데 그 목적이 있습
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1.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활동을 적극 후원할 것입니다.
3. 수배자들의 수배 사유에 대한 진실 규명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경찰과 수사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5. 수배해제 이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지원할것입니다.
6. 수배자 가족들간 위로와 친교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7. 국가 보안법 철폐·준법서약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8.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수배자 가족협의회의 활동이 우리 부모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이 될 것을 확
신합니다.

1998년 10월 16일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유철근·오종렬·이형숙·장재욱)

고재영	공문규	김강호	김다전	김연근	김지옥	김형규
노근식	박관순	박형용	방한덕	배금조	송경관	송길택
송순섭	손춘덕	신용문	신영철	엽양기	유철근	유태중
윤병연	윤지운	윤진남	이국진	이군자	이원호	이의광
이종택	장희숙	정종찬	정 화	진지연	최남식	최임학
최무웅	최태구	홍덕수				

위의 8가지 내용이 의결되었습니다.

<< 16일 수가협 활동보고 >>

★16일 민중생존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결의대회에 앞서 수배자가족협의회 어머니, 아버지께서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스님을 면담하셨습니다.

조계종이 수배해제에 관련한 언급과 신도들의 참여와 명동성당 등의 종교계가 받는 농성을 거부할 것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 조계사농성단을 잘 보살펴 줄 것을 요구하셨고 사회부장 스님께서 마땅히 잘 보살펴 주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이후 국회 귀빈회관에서 국민회의 한화갑 원내총무를 면담하셨습니다. 면담은 진관 스님, 이덕우 변호사님, 민가협 김정숙 의장님과 수가협 공동의장 네분(유철근, 오종렬, 이형숙, 장재옥)과 부모님 몇 분, 전대협 2기 의장 오영식 선배님, 한총련 1기 의장 김재용 선배님이 참여하셨습니다.

국민회의에서는 한화갑 원내총무와 국민회의 이기문 인권위원장이 배석하십니다. 부모님들의 구정권하의 수배해제 조치를 받은 수배자와 수배자 가족들의 고충들과 수배해제의 당위성 등, 경제를 망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 김영삼 정권에 맞서 투쟁한 학생들의 노고에 대해 상을 못 줄지언정 마땅히 구속과 수배 조치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화갑 의원은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국민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토론과 논의를 가져 김대중 대통령 주례회동에서 보고하겠다고 확답을 받는 성과를 일구어 내셨습니다.

★ 다시 조계사로 돌아오셔서 수가협 기자회견을 가지시고 수가협 결성선언문과 앞으로의 목적사업등을 발표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거리로 나가서 서명운동을 벌이시고 돌아오셔서 수가협 결성식과 결의대회를 진행하셨습니다.

결의대회 중에 조계사 농성단이 전원 삭발을 진행하는 가운데 부모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자식들의 머리칼은 부모님들의 가슴에 떨어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지면 안된다고 꼭 이기자고 부모님들께서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슴아픈 현실을 딛고 한발짝 실천의 장으로 성큼 나서신 자랑스러운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권자료실			쪽: 1/13
등록일	인원번호	인원번호	
	B8	161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우 110 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조계사내/ 전화 732 6880 / FAX 723 9120

문서번호: 농성단 제 98-3-31

시행일자: 1998. 11. 2

수신: 재사회단체

참조: 실무자님

제목: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활동 중간보고

1.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을 걸어오신 귀 단체의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께 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2. 본 농성단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조계사에서 천막농성을 벌인지 86일째(11월 2일 현재)입니다.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항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길게는 6년여의 수배를 받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과거청산과 인권의 차원에서 구 징권하의 정치수배자들의 수배조치는 해제되어야 됩니다.

3. 수배자라는 객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배해제 투쟁을 여기까지 선진시킬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귀 단체에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4. 그동안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귀 단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기간 수배해제 투쟁의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5. 향후 조성되는 인권정국의 일련의 흐름속에서 저희들의 문제가 지혜롭게 풀릴수 있게끔 귀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별첨자료 첨부 : 활동보고서(총 12쪽)

◆ 행사알림

<p>'일할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위한 문화제'</p> <p>일시 : 11월 15일(일) 늦은 3시~6시</p> <p>장소 : 조계사</p> <p>주최 : 전국연합, ...</p>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단장 오창규

활동보고서

▶ 자료 순서 ◀

- 국제 시면위원회 사무총장 피에르 시네 서명
- 농성단 활동보고
- 농성단의 요구사항과 입상
- 농성단의 향후계획
- 농성자 명단
- 정치수배해제, 양심수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해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 <별첨자료 1> 대통령 면담시 제출한 수배해제에 관련한 우리의 입장
- <별첨자료 2> 새정치국민회의, 법무부와의 대화 경과 보고
- <별첨자료 3>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명단

1998년 11월 2일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오창규 김현곤 유병문 엽동렬 김성숙 이영수 김제돈 홍춘호)

9월 10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도
농성단을 방문하여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10/9/98

No one should be prosecuted and
jailed for the non-violent expression
of political beliefs.
In solidarity with the students
of South Korea who have struggle
throughout the modern history
of this country for democracy &
humanrights

Pierre Sané
Secretary 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Pierre Sané



- ▶ 사진은 엠네스티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의 수배해제를 지지하는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왼쪽 사람은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오창규 단장입니다.
- ▶ 오른쪽은 피에르 사네의 자필 서명서입니다.

1.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활동보고

4월 광주전남지역에서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8월 9일 조계사에 전국의 시국관련 수배자들이 조계사에 모여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농성 86일째(11월 2일 현재)를 맞고 있는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의 간략한 활동보고입니다.

1)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피에르사네), 스웨덴 집권당인 사민당 산하 청년위원회 의장(앤더스 린드버그)이 방한기간에 본 농성단을 찾아 정치수배해제·양심수석방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자필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의 명망 있는 사회인사들이 탄원서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고 있으며, 11월 2일 현재 '정치수배해제·양심수전원석방·양심수군대문제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에 4만여 명의 시민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인권신장'과 '부정과 독단의 구시대적 정치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 연대하여 각종 집회를 비롯한 제반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전국연합, 민가협 등 사회단체 인사와 학생, 노동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치수배해제, 양심수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개최(8월 22일)
- 사회단체 인사와 시민학생 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심수전원석방과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개최(9월 13일)
- 전교조, 민가협 등 사회단체 인사와 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결의대회'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개최(10월 16일)

3) 본 농성단과 함께 전국의 수배자 부모님들이 수배해제를 위한 서명·탄원 운동과 년담을 진행하는 등 수배자녀들(구정권하 수배자 총 66명¹⁾)의 실질적인 수배해제조치를 위해서 제반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108배 용맹정진 71일째(11월 2일 현재)
- 상시적인 수배자 가족보임을 진행하여 수배해제를 위한 제 방안을 모색

1) 별첨자료 첨부 <내용 : '김영삼정권시절 학생운동관련 정치수배자' 명단>

- 대책위와 함께 정부당국과의 면담 진행

- 민가협 목요일회 결함 등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진행

-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 결성, 결성과 함께 수배해제 촉구 기자회견 가짐

4) 여성잡지들 비롯하여 길지 9월호, 뉴스플러스, 말지 10월호, 한겨레 21, 시사저널, 광주 CBS, 불교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대학신문 30여 곳과 라디오(여성시대) 등 공중과 방송매체를 통하여 농성단 소식과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실림

2. 농성단의 요구사항과 입장

1. 김영삼 정권 시절에 양산된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수배조치를 해제해 주십시오.

김영삼 정권도 출범초기에 3백여명의 정치수배자들을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리는 실질적인 수배조치해제를 진행했던 것으로 압니다. '국민의 정부'는 정권교체를 최초로 이룬 정부답게 적극적인 정치수배 해제조치를 촉구합니다.

2. 양심수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군대문제 해결에 대한 상식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3. 강위원, 정명기, 정태홍 한총련 전인 의장을 비롯한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사면과 석방을 요구합니다.

4.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법원은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6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6기 대의원 검거는 초법적인 인권탄압이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한총련은 부족하지만 백만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학생들의 대표 조직입니다. 학생운동이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탄압이 아니라 토론과 행동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학생운동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대화와 지도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5. 국가보안법은 민주와 통일의 새 시대에 맞지 않으며 위헌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 혹은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3. 향후계획

1. 하반기 정부의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계획에 발맞추어 민중생존권사수와 인권 신장을 위하여 투쟁하는 제 사회단체와 긴밀한 연대속에서 인권요구안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그에 기반하여 대통령면담, 문화제, 집회 등을 적극 벌여내어 수배해제의 폭넓은 저변을 마련해 마침내는 수배해제의 실질적인 목적을 쟁취할 것입니다.

① 인권요구안 작성

담당 절실하면서도 제 단체와 폭넓게 합의할 수 있는 인권요구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대통령 면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일괄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대통령면담 대표단' 구성

전국연합, 민가협, 유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수가협 등 명망있는 사회단체 어르신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기자회견 등 공동의 행보를 견고 향후 전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여 대통령면담 성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인권요구안이 관철되게끔 한다.

③ 집회와 문화제 개최

11월 15일 양심수진원석방과 대통령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힐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위한 문화제(가칭)'

12월 1일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국제연대 집회 (한국은 국회앞 대규모 집회)

12월 1~10일 인권주관을 맞이하여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육중우쟁위원회가 종횡중하여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벌여낸다.

④ 인권요구안의 내용으로 범국민서명운동과 각계단체가 참여하는 선언운동 진행

위의 계획은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민가협, 유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단체와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주 1회 각 단체의 실무자가 참여한 회의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수가협(김영산전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을 중심으로 전국의 수배자 부모님들이 제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연대속에서 각종 집회와 탄원, 서명 운동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수배자녀들의 신진적인 수배해제조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낼 것입니다.

3. 각 나위 수배·구속자 대책위를 중심으로 수배해제와 학생운동의 합법지평을 넓혀내는 투쟁을 적극 벌여내고 여기에 교수님을 비롯하여 종교계, 학계, 법조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명망있는 분들을 동참시켜 정치여론을 폭넓게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4. 문화제, 집회 등을 통한 대중적인 여론에 근간하여 명망있는 사회단체인사와 학생운동 선배들로 구성된 대화창구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사법당국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수배해제의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5. 아무쪼록 그동안 부족한 농성단 활동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농성자 명단

오창규 (吳昌圭) - 학생운동 관련 최장기 수배자

67년 광주 출생

86년 전남대 심리학과 입학

93년 전남대 총 학생회장, 남총련 의장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현 전남대 대학원 행정학과 재

김현곤 (金鉉坤)

69년 부산 출생

87년 서울대 농화학과 입학

97년 한총련 연대사업위원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유병문 (兪炳文)

72년 경남 거제 출생

92년 동국대 불교학과 입학

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염동렬 (葉東烈)

72년 전남 장성 출생

91년 건국대 농학과 입학

97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배

김성숙 (金晟夙)

72년 전남 장성 출생

91년 전남대 가정관리학과 입학

93년 전남대학신문사 편집장

97년 한총련 언론사업 활동 중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

이영수 (李泳洙)

71년 경북 영천 출생

94년 서울대 농촌사회교육과 입학

97년 서울농대 부회장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김재돈(金載敦)

75년 광주 출생

91년 서울대 농기계과 입학

97년 서울 농대 회장, 경기남부총련 의장 권한대행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홍춘호(洪春鎭)

75년 충북단양 출생

94년 인천대 국문과 입학

97년 인천대 인문대 회장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5.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해 국민에게 드리는

호 / 소 / 문

정치적 견제세력에 대한 초법적인 인권탄압이 난무하는 사회는 정치 발전도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없으며 부정부패와 경제과탄으로 인한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로 확인되었습니다.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다 박해를 받은 모든 양심세력들에 대해 수배해제와 전원석방이라는 웅담한 선물을 안겨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제 2의 건국을 이루어 내는 지름길이자 국민대화합으로 경제회생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8.15 특별사면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헌정파괴와 경제과탄의 주범들에게는 사면에 복권까지 전폭적으로 단행한 반면 그들에 저항하다 수배 받고 구속된 양심수들은 온갖 조건을 부처 배제 선별하고 그 나가 선별된 사람들도 가석방, 형 집행 정지, 감형만을 단행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발전과 경제회생을 김대중 정부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8.15 특별사면의 교훈입니다. 이제 진정한 민주 발전과 인권신장을 통해 경제회생의 정치적 원동력을 형성하는 일에 각계의 뜻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백만 청년 학생 여러분.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우리와 함께 공부하고 뛰어 놀던 친구,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일신의 안락보다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들입니다. 이들의 수배해제 전원

석방을 위해 10만명 서명운동에 모두 나섭시다. 각 학교마다 후원회, 대책위등을 꾸려 후원주점, 모금, 선전활동, 문화행사 등을 다양하게 벌여 학우들의 대중적 힘으로 수배해제, 구속자 전원석방을 쟁취합시다.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교수님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여론 선도층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다 감옥으로 끌려가고, 거리를 헤매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 수배해제, 구속자 석방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탄원해 주십시오.

수배자, 양심수들의 가족과 부모들은 한탄하고 눈물 흘리기 전에 자식을 믿고 아들, 딸과 손잡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합시다. 부모님의 사랑만큼 사회적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회, 청와대, 검찰, 법무부등 모든 관계 기관을 방문하고 청원하고 항의 합시다. 자식을 믿고 함께 싸우는 것이 부모님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양심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수배자와 양심수들을 적극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사회적 발언력을 높입니다. 악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참다운 종교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흉악범이 아니라 양심수, 애국지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수배해제, 양심수석방의 중재지가 되어주십시오.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과거 수배와 감옥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가 집권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해 옹당한 자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단체들은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속에서도 수배자들과 양심수들이 우리들의 동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집회와 행사 과정에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수배해제, 양심수 석방을 적극 알려내고 요구합시다.

모든 민주적인 정치인들, 양심적인 종교계 지도자들, 각계 각층의 민주단체, 백만 청년 학생들은 역사의 주인, 민주발전과 경제회생의 주역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투쟁에 열과 성의를 다해 나섭시다.

1998년 8월 22일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대표 오창규